

화장품 용기인쇄 및 포장산업 선두두자

부식, 코팅, 인쇄 장식 등 원스톱 공정으로 경쟁력 키워



성 낙 현
삼안산업(주) 대표이사

오늘날 화장품 용기의 디자인은 소비자들에게 화장품을 구매하는 주요 동기를 부여한다.

최근 화장품 업체들도 소비자들에게 바로 각인될 수 있는 내용물 컨셉을 표현할 '똑똑한 용기'를 내놓으면서 화장품 용기를 단순히 내용물 보호차원이 아닌 경쟁력 있는 수단으로서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 용기 인쇄는 소비자들에게 내용물의 특징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외관상의 아름다움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화장품 용기는 기초화장품(스킨, 로션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플라스틱과 유리가 주원료로 쓰이고 있으며 그 외 기능성 화장품은 유리 뿐 아니라 플라스틱, 라미네이트 튜브, 세라믹 등 다양한 소재가 적용되고 있다.

화장품 용기의 경우 종류도 많고 모양도 제각기라 형



▲ 삼안산업(주)의 생산제품



◀ 경기도 시화공단에 위치한 삼안산업(주)

태에 맞게 인쇄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 중 유리병 인쇄는 유리표면의 까다로운 특성으로 인해 부식, 코팅, 인쇄, 장식조립 등의 다양한 가공처리가 필요하고 폐수처리와 보관 및 유통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공정 특성상 유리병 인쇄는 반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용기 인쇄보다 시스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화장품 용기인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삼안산업(주)(대표이사 성낙헌)은 타 인쇄업체와 차별화되게 화장품 용기의 가장 첫단계인 부식에서부터 시작해 코팅, 인쇄 장식 등 사출을 제외한 모든 과정을 원

스톱 공정으로 진행, 투명한 유리를 불투명하게 제작하는 부식을 한 뒤 스크린 인쇄와 코팅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용기 인쇄 업체의 경우 폐수처리가 힘들어 공단에 입주하기가 어렵지만 삼안산업은 창업당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약품처리 시 발생하는 수질, 대기오염을 위한 폐수처리 설비를 완비하고 지난 94년 대지 2,150평, 건평 1,650평 규모의 공장을 증축, 경기도 시화 공단에 입주했다.

삼안산업은 1990년에 설립된 이래, 화장품, 드링크, 컵류, 주류, 용기의 표면 부식,

코팅, 인쇄를 하는 유리제품 가공 사업과 플라스틱 압출 성형, UV 인쇄, 스탬핑 인쇄 가공하는 플라스틱 사업을 전개하며 화장품 종합 포장 산업의 선두 주자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1998년 업계 최초로 ISO 9001 인증을 획득한 삼안은 플라스틱 사업에서도 2001년 ISO 9001을 추가로 인증 획득했다.

또한 2002년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유망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으로 등록하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동종업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03년 10월 ISO 14001

SAMAN

을 인증받는 등 화장품 용기 분야의 모범적인 성장기업으로 그 입지를 넓히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 맞서 철저한 준비와 고품질 제품을 생산해 내기 위해 설비구축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는 삼안은 그 명성에 걸맞게 국내외 손꼽히는 브랜드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LG생활건강, 태평양화학, 엔프라니, 나드리, 애경, 코리아나, 남양, 두산테크팩 등과 거래하고 있는 삼안은 바이어들에게도 당연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삼안산업의 성낙준 영업부장은 “화장품 용기 인쇄는 부식, 도장, 인쇄, 성형 등이 각기 다른 곳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불량률이 높아지고 납기가 늦어지며 품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많은데 삼안산업은 모든 작업공정을 원스톱으로 직접 진행해 완성도 높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납기를 반드시 지켜 고객만족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고객과의 약속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시스템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원스톱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해도 반자동 시스템으로 이뤄지고 있는 유리병 인쇄의 경우 인력 부족이 가장 큰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성 부장은 “현재 인쇄단가는 20년전이랑 비슷한 수준이지만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다”며 “이는 유리병 인쇄업체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삼안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내부적으로 혁신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인쇄 자체만으로는 매출이 어려워 유리 제품뿐 아니라 플라스틱 압출 성형, 부식, 코팅, 인쇄 등의 사업을 통해 화장품 부자재 종합 회사로 발돋움 하고 있다.

삼안의 혁신활동으로는 엘지생활건강과 6시그마 운동 및 TPM 활동으로 외국 화장품의 침투로 이에 대응하는 품질 혁신은 물론 플라스틱



▲ 반자동 시스템으로 이뤄지고 있는 유리병 인쇄



◀ 삼안산업(주)의 폐수처리 설비

성형 조건의 최적화를 실시해 불량률을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삼안은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전사원들이 혼연일체의 마음으로 회사발전에 노력하고 있으며 설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증대는 물론 원가 절감 등의 효과를 이룩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또한 특별한 기술자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화장품 부자재 업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공정에 표준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ISO 인증을 받아 표준화를 통해 작업의 편리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원하

는 점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삼안의 남다른 노력은 IMF 시절 많은 부자재 업체들이 도산한 가운데 오히려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지난해 65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삼안은 올해 매출 72억원을 목표로 100여명의 직원들이 고객들의 요구 품질에 부응하기 위해 신기술 도입 및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발전을 가할 예정이다.

“세가지 사업을 통해서 기업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 삼안산업(三安産

業). 삼안은 첫 번째 유리제품 가공 사업, 두 번째 플라스틱 가공 사업을 통해 그 포부를 펼치고 있다.

성 부장은 “마지막 사업은 당연히 화장품 부자재쪽으로 현재 시설투자를 위해 준비 중”이라며 “국내 경기가 좋아질때 쫓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장품 포장재의 종합 생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류기업을 꿈꾸는 삼안산업.

남다른 열정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삼안산업의 노력이 동종업계 발전의 시발이 되고 있다. [K]

이한열 기자